

[화제] 신아영 김혜영 부부수필집

부

부

부부란 난로를 등 지고 서있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등을 기대고 서면 등이 뜨겁고 난
로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으면 등이 시
리다는것입니다. 부부가 너무 등을 가
까이 대면 서로 싸우기 쉬우며 너무
거리를 두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부

아

图书在版编目 (CIP)数据

夫妻情: 朝鲜文 / 金禹荣, 金爱京著.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8
ISBN 978-7-5389-1443-6

I. 夫… II. ①金…②金… III. 散文—作品集—中国—
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7)第 115029 号

书 名/ 夫妻情
著 者/ (韩国)金禹荣, 金爱京
责任编辑/ 李英玉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牡丹江书刊印刷厂
开 本/ 850mm × 1168mm 1/32
印 张/ 9
字 数/ 230 千字
版 次/ 2007 年 8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8 月第 1 次印刷
印 数/ 1—500 册
书 号/ ISBN 978-7-5389-1443-6(民文)
定 价/ 15.00 元

행복의 메시지 해와 달의 기운으로 은쟁반에 받치다

《부부》란 과연 무엇인가? 남편과 안해, 아니면 우리 부부의 표현처럼 살과 마음을 맞대고 살며 같은 방향을 향하여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접인(接人)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남남끼리 어찌어찌하여 만나 싫건 좋건 상관없이 애 넣고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친구이자 지극한 《원썬》로 까지 비교되는 부부.

어제 싸웠다가도 다음날 웃는 부부, 생전 안볼듯이 등을 돌리다가도 한마디 파스한 말에 웃으며 다가서는 인생의 동반자요, 이 세상의 동무가 부부인가?

미국의 아브라함이라는 사회학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십년을 〈부부학〉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였는데 부부론에 대해서는 박사학위가 없다.》하면서 이렇게 그 소회를 피력했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 아는것이 부부라는것을 알 뿐 지금 이 순간 나는 부부에 대하여 아는게 하나도 없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부부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부부라는 이름 아래 실려 나갈뿐이다. 따라서 나는 부부로 함께 살아가면서 현장 박사학위를 취득할뿐이다.》

결혼은 남자에게는 에피소드이고 여자에게는 히스테리라고 합니다. 또 결혼전에는 서로 눈을 똑바로 뚫을테니 이제부터는 한쪽눈을 감고 사는데 현명하다고 합니다. 결혼은 어떤 상품의 와인을 마시고 맛이 좋다고 감격한 나머지 그 사나이가 와인의 양조장에 취직하러 가는것과 같습니다.

부부란 난로를 등 지고 서있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등을 기대고 서면 등이 뜨겁고 난로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으면 등이 시리다는것입니다. 부부가 너무 등을 가까이 대면 서로 싸우기 쉬우며 너무 거리를 두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다정한 부부나 친한 친구라도 이쪽이 갖고있는 신비한 어떤 내용은 간직하며 향기를 솔솔 풍긴다는것은 오래도록 가까이 할수 있는 안전장치요, 사랑의 묘약인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상대방에게 뭔가 보일듯말듯하며 내밀히 풍기는 인간적이 매력에 있어야 끌리는것입니다. 너무 다 보여 알것 모를것을 다 들여다본다면 매력이 없어보이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적당히 알고 적당히 모르는것, 이것이 사람 사는 리치인것을 알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것일까 하고 자문해봅니다.

권위 있는 어느 로정치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정치를 평생 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부부로서 금실이 좋은 부부이다. 부부가 평생 살아가면서 부부싸움을 안할수는 없지만 시종일관 다정하게 금실 좋기로 살기란 참으로 힘들기때문이다. 이가운데 특히 존경하라면 마누라 여럿을 거느리고 사는 남자이다. 여자 하나 다루기도 힘든데 그 남자는 참으로 위대한 이 나라 최고의 정치 지도자이다. 나는 그분 밑에 가서 인생의 도리와 부부의 참사랑을 한수 배우고싶다.》

이분의 말이 시사하는바가 큼니다. 그만큼 여자다루기도 힘들고 역시 남자다루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부도 20여년을 살면서 많이도 싸우고 많이도 화해를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정이 들고 살아가면서 미움도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움보다는 살가운 정이 더 든다는것을 느낍니다.

젊어서는 사랑으로 중년기에는 친구로 노년기에는 서로의 간호사로 살아가야 할것입니다.

서양의 철학자 아부난드는 말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자본금이다. 이 소중한 자본을 잘 리용한 사람에겐 승리가 온다.》

언제인가 결혼을 하지 않은 어떤 친구가 우리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은 해야 옳은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옳은가?》

우리 부부는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 결혼은 해야지. 좋은 안해를 얻으면 행복하게 되고 또 소크라테스처럼 쿠산지페 같은 악처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수 있으니까!》

이 책이 나오기까지 부족한 글에도 기꺼이 추천의 글을 써주신 문학적인사이신 구인환교수님과 성기조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본대형(大兄), 이명수부총장님, 김호택문화원장님의 좋은 글의 격려와 넉넉한 후의에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팔순의 홀로모님께 이 책을 두손으로 바칩니다.

두루두루 주변의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것은 오직 고결한 《사랑》뿐이라고 합니다. 20 여년을 고락을 같이해왔으며 앞

으로 더욱 긴 세월을 싸우고 웃어야 할 우리 부부.

《부부》란 시를 사랑의 보자기에 싸 행복메시지를 담아
해와 달의 기운으로 은쟁반에 받쳐올립니다.

하나가 부족하여 외로워
둘이서 둘이라네
손이 아파 밥 못할젠
이 손이 밥 지어 대신하고
발이 아파 못걸을젠
이 몸이 업고서 걸어주고
사랑도 혼자사랑 못해
둘 사랑 맞사랑이라네.

— 자작시 《부부》중에서

2007 년 어느날
대한민국 중원땅 문인산방에서
나은 김우영, 그루터기 김애경

추천글

쓰기의 향기 부부상종

구인환

(소설가, 서울대 교수,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글을 쓴다는것은 숙명적이에요, 래일을 지향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표이다.《쓰지 않으면 죽을수밖에 없다》는 릴케의 말과 같이 글을 쓰는 일은 살아가는 방편이요, 길이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나 그 길을 가는것도 아니요, 또 갈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소명의식으로 전력을 다하여 글을 쓰는 일에 매진할 때만이 소담스러운 열매를 얻어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글쓰는 일은 옛날 선비와 같이 여기고 음풍롱월(吟風弄月) 하는것이 아니고 전력을 다하여 쓰는 일에 매진하는 프로정신에 의한 창조활동이다. 시인이니 소설가니 수필가니 하는것도 바로 그 장인정신에 창조를 업으로 삼고 거기에 전력을 투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기에 수많은 글쓰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어도 정작 글쓰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것도 이때문이요, 또 쓴다고 해도 쓰다가 중단하는 이가 많은것도 쓰는 일을 업으로 하기가 쉽지 않음

을 말한다.

이번에 김우영, 김애경 부부수필집 《부부》가 나오는것은 보기 드문 동반의 창정적인 결실이다. 수필가요 소설가인 남편 김우영작가와 수필가인 부인 김애경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편집한 이 아담한 문집은 어떤 감동적인 정감을 주면서 사랑과 화목으로 조화된 문학의 향기를 느낄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 이 가파른 세상의 파도를 헤치고 살아가는것도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같이 글쓰기를 하면서 문단활동을 하고있는것은 더욱 축복된 일이다.

거기에 부부수필집을 상재하게 되니 이 또한 축복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부부수필집 《부부》가 풍기는 문학적향취가 세상에 널리 율려져 그 여향에 젖어 삶을 살찌게 하고 풍요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서울 신대방동

운당집필실(雲堂執筆室)에서

차 례

자서전적수필집 《부부》를 출간하며—

행복의 메시지 해와 달의 기운으로 은쟁반에 받치다/1

추천글

쓰기의 향기 부부상중/5

제1장 문학의 강으로 만나 이론 부부사랑

만 남/2

상중례식/13

인 사/19

세모진 방/25

제 2 장 지난시절 이야기

학창시절/34

비 오는 날의 추억/36

부치지 못하는 글월/39

고향에서의 문학과 삶/43

나구야수제비와 작가남편/49

저녁 잘 잠수고는.../57

친구 따라 강남 삼천리/61

제 3 장 당진에서의 새로운 등지

이 사/66

마늘 두쪽의 가난/75

가시고기와 문학생활/84

얼른 와요.../99

루즈 묻은 딸기/108

제 4 장 온천의 도시 온양에서 생긴 아픔

아픔과 생활/114

정형외과병동에서/120

치 유/138

엽서우의 사군자/150

삭발한 두 딸/154

제 5 장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요, 마지막 사랑이며 당신은 나의 모든것이요

출간과 레식/160

려행길에서 만난 사랑/164

강의를 마치고/172

제 6 장 부평초처럼 떠돌며

예산능금/176

온양에서/178

귀 향/181

보람과 번민의 기나긴 밤/183

제 7 장 금산으로

교정에서/192

치한(癡漢)으로 변신은 무죄/200

제 8 장 대전에 정착

2001년 11월 대전에 이사오던 날 밤/204

조치원으로 발령이 다시 나고/207

부부가 문학상을 동시에 타고/212

만추와 사랑송/215

김남식교장선생님 편지글 모음집을 보고/218

제 9 장 드디어 대전광역시 시민이 되다

안 착/224

서대전역에서 라주 권형일가를 보내고/227

대전종친회 금산수련회를 마치고.../232

제 10 장 대전에서의 첫 결실, 보람

결연 청소년과의 만남의 날/246

이 계절에 읽는 청소년 시 감상/257

우리들의 청소년 수필 감상/260

보 증/263

음악회/266

네 이 놈 운명아, 길을 비켜라!/270

제1장 문학의 강으로 만나 이룬 부부사랑

나와 안해는 서울에서 문학활동을 하다가 만났다. 1983년 어느날 밤, 늦게 영등포에서 심야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된것이 평생 함께하는 부부의 인연이 되었다. 서로 문학청년과 문학소녀시절에 만나 살아오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서울에서 세모진 신혼방에서 살면서 수채화 같은 아롱진 추억도 있었다. 갑작스런 아버님의 부음으로 시골마당에서 눈물의 상중례식을 올리고 고향 서천에서 우리 가난하지만 열심히 부부로 살았다.

만 남

1983년 12월, 서울 동대문 제기동 지하철입구 부근 영국피숍.

이날 찬 겨울바람이 옷자락을 스치며 쌀쌀하게 불고있었다. 계절이 겨울임을 피부로 실감하였다. 국문학자 이승녕 박사님과 연세대학교 마광수교수님을 《송년 문학의 밤》 행사장에 초대하였다. 이분들의 강의와 시인 윤동주에 대하여 문학회 회원들과 문학성과 시대성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등의 주제토론과 주옥같은 시랑 송행사를 하였다. 짜임새 있는 행사와 뒤풀이까지 잘 마쳤다.

밤 늦게까지 행사는 이어졌다. 그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한달여동안 준비를 하느라고 우리들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다. 피곤한 탓도 있고 행사후의 허전함에 어디라도 훌쩍 떠나고싶었다. 본디 여행을 좋아하기때문에 어디론가 낯모른 곳으로 훌쩍 가서 술 한잔 마시고 폭 쉬고싶은 생각이 생겼다.

런근에 있는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벌써 나의 발길은 제기동 지하철승강장으로 시나브로 가고있었다. 이때 마침 집방면이 영등포쪽이었던 회원 미스 김과 지하철에 동승하게 되었다.

《어디 가세요?》

《예, 어디 훌쩍 여행을 다녀오려구요.》

《예, 그러세요. 멋있는데요!》

그리하여 미스 김과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역까지 왔다. 문득 여행은 혼자보다 옆에서 말벗이 한사람 있는것도 괜찮다 싶어 미스 김한테 말을 걸었다.

《우리 사고 한번 칠가요?》

《예?》

《이곳 영등포역 플랫폼에 나가 어느 방면이든 제일 먼저 오는 남행열차를 타고 어디든지 가는것입니다.》

《...?》

《뭘, 나 나쁜 사람 아니예요. 랍치는 안할터이니 갑시다. 그까짓거...》

《예, 괜찮을듯싶네요.》

《맞아요, 하하하... 가히 떠나는 자의 가방을 둘러멘 뒤모습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호호호... 농친 마지막 열차를 바라보는 플랫폼의 너인의 뒤모습도 아름답구요! 표현이 멋있어요.》

이렇게 하여 미스 김과 함께 탄 열차가 후날 우리 운명을 함께 가는 길을 접어들게 할줄이야? 이때의 시간은 아마 밤 열시전후였으리라. 여행의 진미는 약간의 술과 간식거리가 아니던가. 역구내에서 술과 오징어, 과자를 조금 사고는 열차에 올랐다.

야간열차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미스 김과 나는 열차의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나란히 호남선행 열차에 몸을 맡긴채 감감한 증원평야를 달리고있었다.

어차피 애초에 약속대로 목적지가 정해진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다가 발길이 머무는 곳에 내리거나 말거나 하는 식의 정처없는 밤길 여행이었으니 부담이 없었다.

둘이는 술과 과자를 주고 받으며 몸을 편안하게 의자뒤로 기대고 앉아 마치 사랑하는 한쌍의 연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꽃을 피우며 여행을 즐기고있었다.

우리가 흔히 겪어야 할 젊은이로서의 사랑과 인생을 애기했고 아직 문학이란것이 무엇인지 손에 잡힐듯 말듯 시나브로 다가왔다. 더러 허무의 높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미지의 동경과 가치관의 혼돈, 앞으로 젊은이로서 나아가야 할 사회적진로에 대하여 얘기를 했다.

우리는 같은 피끓는 스무살 청춘이라고 다짐했다. 스무살은 그냥 스무살이여서는 안된다며 말했다. 감탄사가 붙는, 아! 스무살이여야 한다. 희망과 절망의 간극이 존재하는 삶이여야 한다. 본질의 현상과 현실의 이상이여야 한다. 스무살의 언어는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이기에 매력적이다. 실재적형태가 아닌 가능한 실태이기에 슬프지 않다. 스무살은 애오라지의 문형 감탄형(!)이여야 한데 둘의 공통분모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 이어서 나는 말했다.

《문학에서 지적인 재미를 누리려고 하는것은 삶의 참다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생명의 발견을 뜻하자는것이지요. 이것이 곧 문학에서 가장 소중히 가꾸고 넓혀나가야 할 소임입니다. 또 문학의 또 하나의 기능인 상식의 세계속에서 주변의 당면문제를 펼쳐놓고 깨우치게 하는 상식적 재미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지요. 그러나 문학의 비중으로 볼 때 상식적 재미를 추구하는 문학은 지적인 재미를 형성화하는 문학에 견주어 높은 평점을 줄수는 없지만 상식의 세계를 풍족하게 하고 인간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준다는 의미에서 마냥 무시할수 없지요.》

미스 김도 질세라 말을 받아친다.

《그러나 지적인 재미를 동시에 찾는 독자들도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상식적인 재미를 누리고싶은것이 인간의 인정도이지요.》

미스 김은 수필이 좋아 수필을 쓰게 되었다며 수필강론을 제기한다.

《저는요, 수필이 원숙한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고아한 생활의 표현이며 조화의 미를 잃지 않는 문학이기때문에 이 장르에 반했어요. 한가한 심경에 따라 마음의 여유에서 솔직한 독백을 통하여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산뜻한 글이에요. 어떠한 제재든지 개성과 무드에 따라 써야 하며 균형속에서 파격하는 여유를 필요로 하기에 말이에요.》

《아, 맞아요. 수필은 그렇지요. 온아하고 우미하며 따뜻하며 아담하고 점잖은 아름다움 같은 그런것이 수필문학의 백미(白眉)이지요.》

《저는 중수필류인 에세이 즉 비교적 리론적, 사색적, 비평적, 소론문보다는 연수필 미셀러니(Missellany)라고 총칭되는 개인주의 주관적인 느낌, 흥미 인상 등을 나타내는 수필, 개성적, 체험적, 예술성 부드러운 정서적인 수필이 좋아요. 마치 마가렛꽃과 같이 하얀 꽃잎과 짙은 단색의 꽃바탕 쪽갓잎을 닮은 짙은 녹색의 잎새가 달린 청초하기 이룰데 없는 초여름의 꽃, 신록의 류월에 결혼하는 신부, 준 브라이브의 수필을 쓰고싶어요.》

《미스 김은 수필에 대하여 아주 신뢰가 깊군요. 저도 산문을 좋아하기에 수필도 쓰지만 특히 소설로 성공하고싶어요.》

미스 김은 손에 권 오징어를 찢어 내 입에 넣어준다. 그러면서 말을 받는다.

《왜 이랬잖아요. 20대에는 시를 쓰고 30대에는 소설을 쓰며 40대에는 희곡을 쓰고 50대에는 수필을 쓰라고 말이에요.》

《저는 유명한 미국의 작가 헤밍웨이의 <로인과 바다>를 읽으며 소설이라는 깊고 넓은 강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 소설 마지막 대단원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길을 올라가서 판자집에서는 로인이 다시 잠들어있었다. 여전